



제목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21세기북스
발행일	2016. 10. 24.
저자	김형오
출판도시	파주
페이지수	504
ISBN 또는 ISSN	978-8950967376

**내용 요약**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자 하는 오스만튀르크의 메흐메트 2세와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대립을 적은 책이다. 전개 방식은 작가, 황제, 술탄이 자전적으로 말하는 소설 형식을 띠지만 세부 내용은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서 독특하다.

1장은 1453년 5월 29일에서 6월 1일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전쟁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냈다. 2장 황제의 일기와 술탄의 비망록에서는 가상의 일기와 비망록의 형식으로 두 제국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가령 술탄은 뛰어난 총포기술자인 우르반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황제의 어리석음을 비판했다. 반면 황제는 우르반의 기술을 알지만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을 탄식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두 리더 모두 저마다의 입장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기존의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멸망, 수도의 점령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장악하는 술탄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황제의 주관적 감정 및 철학과 사고를 첨가하였다. “왜 나는 그곳에 있었는가”라는 에필로그에서는 현재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 저자의 술 회가 후일담처럼 서술되어 있다.

복잡한 역사적 사건과 방대한 사료를 리더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엮어나간 저자의 세밀함과 식견이 돋보인다. 대화체, 주변의 사물이나 기후, 인물들의 표정에 대한 설명은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 또 첨부되어 있는 참고문헌은 책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전문가와 관심 있는 대중들에게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